**캐릭터**

**라케시스**

운명의 세 여신 중 둘째 여신. 운명이 있음을 믿고, 그 운명이 자신의 열악한 상황을 타개해줄 것이라 믿는 인간들의 염원에 의해 태어난 신이다. 클로토가 운명의 실을 짜고, 아트로포스가 그 운명의 실에 인간의 죽음의 시기와 장소 등을 정한 뒤, 실을 잘라내고 나면, 그 운명의 실을 인간에게 감는 일을 하는, 인간에게 운명을 부여하는 신이다.

인간들을 지배하고 신들이 세상의 주체가 되자는 아트로포스에 말에 반대하며, 신들의 사명은 인간들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부족하고 모자란 인간들을 보살피고, 관장하여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것인데, 인간들을 관장해야 할 존재인 신이 신의 사명을 깨고, 인간들을 멋대로 지배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 주장하고, 아트로포스로부터 인간들을 지켜내려 한다.